

2026 JEJU EXHIBITION SERIES

제주도의

시선

CONTENTS

01 수평의 사유

02 7월의 기록

03 시월의 확장

04 아카이브

05 INFO & GRATITUDE

수평의 사유

제주의 수평선은
끝이 아닌,
무수한 사유가 시작되는
열린 시간의 시작 었습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경계는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자연이 건네는
깊은 층위의 언어들이 쌓입니다.

이번 연작 '수평에서.'는
7월 저지의 수평한 시작에서 출발하여,
10월 산양의 숲속에서 일어나는
시선의 확장을 기록한 여정입니다.

단순한 선에서 시작된 호흡이 면으로,
멈춤의 시간이 사유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캔버스
에 담았습니다.

이곳에 쌓아 올린
겹겹의 확장된 사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PART 1. **수평의 시작 *THE BEGINNING OF HORIZON***

제주의 서쪽,
예술인들이 모여 숨 쉬는 저지문화지구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7월의 뜨거운 빛 아래 마주한 제주의 수평선은
저에게 끝이 아닌,
무한한 사유가 시작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수평선 너머의 고요를
캔버스라는 공간으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가장 평온한 상태인
수평'을 통해 제주의 자연이 건네는
위로와 예술적 본질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시 상세 정보]
저지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1층 전시관
2026. 07. 18 - 08. 28
화 - 일: 10:00~17:00
(법정공휴일 휴관)



질감의 경계에서 마주하는 '수평의 시작'

두 분할된 화면 속에서
거친 입체의 볼륨과 유동적인 투명함이라는
이질적인 두 물성이 극적으로 조우합니다.

상반된 질감들이 맞닿는 경계를 통해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조형 언어인
'수평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토대로 확장되는
청색의 층위들은
관람객에게 시각적 안정을 주는 동시에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시작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PART 2.

시선의 확장 THE EXPANSION OF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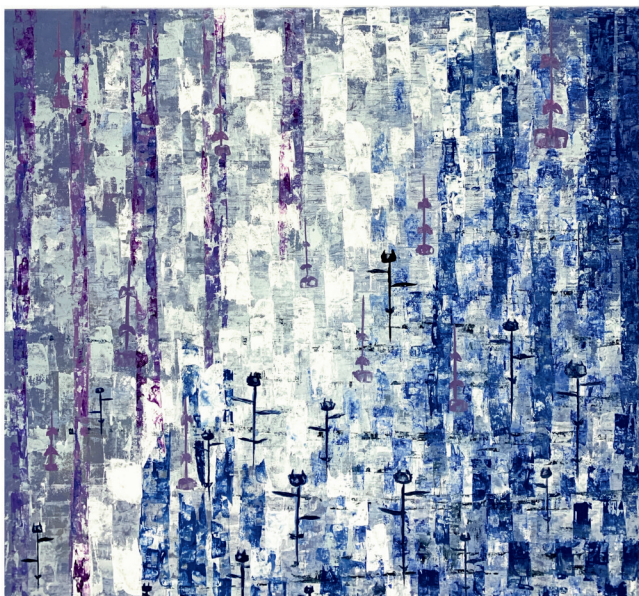
7월의 수평선이 건넌
고요한 본질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숲의 깊이로 확장됩니다.

폐교의 정적을 예술의 온기로 채운
'예술꽃산양'에서
선(Line)은 면(Plane)이 되고
시선은 입체적인 사유로 뻗어 나갑니다.

가을 햇살이 머무는
산양의 숲속에서 수평의 끝이 아닌
새로운 확장의 순간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이 닿은 캔버스 너머
여러분 각자의 사유가 더해져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전시 상세 정보]
예술꽃산양 1층 전시실 / 중산간서로 3181
2026. 10. 06 - 10. 18
화 - 일 : 10:00-17:30
(법정공휴일 휴관)



선과 면의 사유의 흔적 그리고 '시선의 확장'

푸른 선에 머물던 시선은
화면 위로 피어나는 형상들을 마주하며
점차 사방으로 뻗어 나갑니다.

종횡으로 교차하는
레이어들은 면을 넘어
흐르는 시선을 따라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사유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EON-RYANG KIM

ACKNOWLEDGMENT

“제주의 수평선에서 시작된
나의 시선은,
이제 캔버스라는 공간을 넘어
무한한 사야로 확장됩니다.

이 고요한 기록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고 파동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